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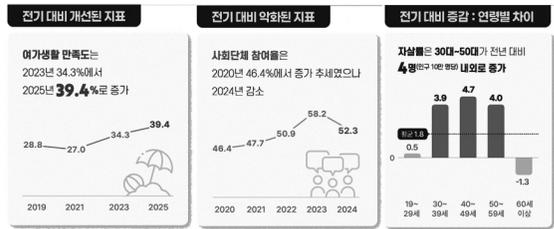
삶의 질 '정체'...독거노인 비율 전남 '1위'·광주 증가율 최고

국가데이터처 2025보고서

자살률 2011년 이후 최고 만족도 OECD 최하위권 걱정·우울지수 3년만 악화

전남의 독거노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는 증가폭이 가장 커 고령화의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비율은 20%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자살률은 2년 연속 증가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상생활에서 우울과 걱정을 느끼는 수준은 3년 만에 악화했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독거노인 비율은 23.7%로 2015년(19.1%)보다 4.6%p 증가했다. 그 중 전남이 2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광주는 2015년 19.1%에서 2024년 25.1%로 6%p 상승해 대구와 함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취약하다"며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에서 더 문제가 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2020년(6.0점) 이후 2022년 6.5점까지 올랐다가 2023년 6.4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2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평균보다 0.6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는 모두 6.2점이었다. 300만원 이상 가구부터는 6.4~6.5점으로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를 보면,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 수준으로, 전년(2021~2023년) 조사와 동일했다.

전체 조사 대상인 147개 국가 중에서는 58위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보다 1.0%p 하락했다.

작년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직전 조사인 2023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34.1%로 높아졌다가 소폭 낮아진 이후 정체되었다.

정당, 노조, 동호회 등 사회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4년 52.3%로, 전년 대비 5.9%p 감소했다.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49.6%로 3년 연속 하락해 5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대인 신뢰도는 55.7%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전년 대비 3.0%p 높아졌다.

자살률은 2024년 29.1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해 2년 연속 늘었다. 역대 최고치인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다.

자살률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24.3명)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24년 기준 남자 자살률은 41.8명으로 여자(16.6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22년 기준(22.6명)으로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다. 2위인 슬로베니아(17.5명)와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국가는 10명 전후로 나타나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한국인들의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24년 3.8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높아졌다. 2022년(4.0점)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3년 만에 다시 악화했다. 부정정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벌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점으로 가장 높고, 20대(19~29세)에서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행복 정도를 보여주는 긍정정서는 0.1점 오른 6.8점을 기록했는데, 부정정서와 반대로 나이가 어리고 많이 벌수록 높은 편이었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2024년 4381만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0.4%p 상승해 15.3%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4.9%)은 9번째로 높은 편인데,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두드러진다. 30%를 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라트비아, 뉴질랜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최저저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4년 3.8%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2024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69.5%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65.1%로 낮아졌다가 3년 연속 올라 2023년 70.3%까지 회복했는데, 다시 꺾인 것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쟁 충격 딛고 급반등...코스피 5500선 회복

9% 상승...원달러 환율도 안정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

미국·이란 전쟁 후 이틀 연속 폭락한 코스피가 9% 넘게 급반등했다.

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36p(9.63%) 오른 5583.90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상승 폭은 역대 가장 컸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달 3일 기록한 338.41p다.

상승률 역시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역대 1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11.95%) 기록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여파로 698.37p(12.06%) 급락,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 3일 452.22p(7.24%) 하락한 데 이어 이틀간 총 1150.59p(19.3%)를 내렸으나, 이날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코스피 상승률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55%), 일본 닛케이225지수(1.90%) 상승률 대비로도 컸다.

지수는 전장보다 157.38p(3.09%) 오른 5250.92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5715.30까지 치솟기도 했다.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604조3577억원으로 전날(4194조9468



최근 연이율 폭락한 코스피가 급반등해 단숨에 5580대를 회복한 5일 서울 증권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역대 1위인 코스피가 409조원 가량 늘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37.97p(14.10%) 급등한 1116.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상승률 역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직전 1위(11.47%) 기록을 무려 17년 4개월 만에 경신했다. 전날 코스닥지수는 14% 급락해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날 급반등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5.40p(4.64%) 상승한 1023.84로 출발해 오후폭을 키웠다. 급등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때 발동됐다.

전날에는 급락장에 두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됐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전날 사상 최고치(80.37)로 치솟았던 한국형 공포지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8.29% 급락해 73.71로 내렸다.

전날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

기업성장펀드, 코스닥 상장...최소 300억

BDC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는 도입 취지에 맞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 여기에 투자돼야 한다.

다만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시총 2000억원 이하)에 대한 투자는 출립 방지를 위해 최소투자비율 산정 때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는 증권 매매이나 급전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최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자본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펀드 소멸화를 막기 위해 최소모집금액은 300억원으로 규정했다.

운용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모집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1~5%)을 '시당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자금을 대는 것)하고, 펀드 지분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펀드 지분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연재용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 개척 속도낸다

베트남 플랫폼 확장 이어 우즈베키스탄 하우뱅크와 협약 중양아시아 진출 교두보...이슬람금융 자문 등 협력 기대

광주은행이 신흥 금융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기반 상업은행 JSC Hayot Bank(이하 '하우뱅크')와 '중양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상호 금융시장 이해 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이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증권사(JBSV)를 통해 축적한 해외사업 경험과 디지털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중양아시아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빠른 경제 성장과 금융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신흥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거주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협력 △K-금융 기반 디지털뱅크 기술 지원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조사 협력 △이슬람 금융 분야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약 9만 5000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특화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한 금융 지원 모델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베트남 플랫폼 기

업 OKXE(오케이씨)와 INFINA(인피나)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디지털 기반 해외 제휴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소한 '이슬람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해 중양아시아 및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베트남에서 축적한 해외사업 경험을 토대로 중양아시아 시장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케이뱅크, 올해 코스피 1호 입성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5일 올해 코스피에 1호 상장했다.

이날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실패 후 세 번째 만에 코스피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거래일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한 결과

1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1764만 주에 대해 총 23억7412만 주가 신청됐고 청약 건수는 83만6599건이다. 증거금은 9조8500억원을 끌어모았다. 이날 케이뱅크는 공모가(8300원)보다 0.36% 상승한 833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임재용 기자

한국은행 지역본부, '경제 마스터즈' 대학생 선발

22일까지 신청 접수...산업현장 견학·토론회 참가 등 혜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2026 한은 경제 마스터즈'에 참가할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부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제 마스터즈'를 선발·운영한다.

지원자 중 4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대학생은 경제강좌 수강, 산업현장 방문견학, 자체 토론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졸업시까지 1학기 이상 남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재(휴)학생이다. 4학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프로그램에 정상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경제 마스터즈 최종 이수자에게는 본부장 명의의 이수증과 기념품 등을 수여한다.

경제 마스터즈 참가 신청은 참가지원서를 오는 22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공무팀(이메일 : gwangju@bok.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재용 기자